

신임 장·차관급 인사 프로필

검찰 요직 두루 걸친 수사통

김성호 법무장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특수 수사통이다.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내며 전대검 중수4·3과장, 서울지검 특수3·2·1부장 등을 거쳤다.

▲경남 남해(56) ▲부산 브니엘고 ▲고려대 법대, 건국대 법학박사 ▲대검 중수부 4·3과장 ▲서울 동부지청장 ▲춘천·청주·대구지검장 ▲부방위사무처장(차관급)

공직생활 대부분 '예산' 다뤘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 공직생활 대부분을 나라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는 데 보낸 예산 전문가. '외유 내강형' 리더십. ▲대구(56) ▲경북고, 서울대 행정학과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장, 재정기획실장 ▲재정정보운영실장

인사행정·정부혁신 전문가

최양식 행정부 제1차관 인사행정과 정부혁신의 전문가. 대외관계에서는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라는 평. ▲경북 경주(54) ▲대구고, 중앙대 행정학과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행정부 인사국장, 정부혁신본부장

문광부 요직 거친 엘리트형관료

박양우 문광부 차관 문광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형 관료. 상사와 부하들의 신임이 두터워 업무 추진력과 리더십이 탁월. ▲광주(48) ▲제물포고, 중앙대 행정학과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문화산업국장

식량 등 현장업무 능통

박해상 농림부 차관 종자, 검역, 식량 등 현장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차관보 재직 때 추곡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재 도입. ▲경북 청도(57) ▲대구 협성상고, 경북대 농학과 ▲농림부 식량생산국장 ▲차관보

선박관련 전문 업무 매진

이은 해수부 차관 자타가 공인하는 선박·해사 전문가. 5·31 지방선거에 순천시장으로 출마, 낙선했다. ▲전남 순천(50) ▲순천고,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해양수산부 선박 안전관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침착하고 치밀한 성격

김대우 통계청장 침착하고 치밀한 성격이며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합리적인 스타일. ▲강원 강릉(55) ▲충동고, 서울대 상대 무역학과 ▲재정경제부 관세심의관, 경제정책국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사

참여정부 지방분권 업무 관장

권오룡 중앙인사위원회 행정 16회 출신으로 총무처 인사과장, 충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차관보, 차관, 제1차관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친 인사·지방행정 전문가. 총무처 소청심사위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치면서 내부 행정에 대한 경륜도 쌓았다.

▲경기 안성(54)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학과 ▲행정부 행정관리국장 ▲충남도 행정부지사 ▲행정부 소청심사위원 ▲행정부 차관 ▲행정부 제1차관

조직관리 능력 탁월

강광석 병무청장 월남전에 참전한 육군 예비역 소장 출신으로 오랜 군생활에서 터득한 조직관리 능력이 상당하다는 평. ▲서울(59) ▲육사 26기 ▲1군사령부 인사처장 ▲36사단장 ▲5군단 부군단장 ▲포병학교장

고등훈련기 사업단장 역임

이선희 방위사업청장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의 획득 전문가로 꼽힌다. 현역 시절에는 1997년 4월부터 12월까지 고등훈련기 사업단장을 역임. ▲전북 전주(60)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26년 해경 근무한 '덕장'

관동옥 해양경찰청장 26년을 해경으로 근무한 해경의 산 증인. 부하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워 해경에서는 '덕장(德將)'으로 통한다. ▲전남 순천(53) ▲순천고, 제주대 어로학과 ▲해경청 경비구난국장 ▲해경청 차장

온화한 성품 신망 높아

김병배 공정위부위원장 합리적인 온화한 성품을 지녀 공직위에서 신망이 높다. '바람직한 공직인' 2위를 차지 ▲서울(54) ▲배제고, 연세대 경영학과 ▲공정위 조사국장, 공보관, 시장감시본부장 ▲상임위원

한국개화기 민족운동 전공

유영렬 국립편찬위원장 한국개화기 민족운동을 전공한 한국근대사학자. 청년 시절 사회운동에 주도적. ▲전북 전주(65) ▲승실대, 고려대 대학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승실대 대학원장 ▲백범학술원 비상연락구위원

미 유학한 미술사학과 교수

김흥남 국립중앙박물관장 외부 인사는 첫 번째 수장, 최초의 여성 관장. 70~80년대 미국 유학생활을 통해 미술사학도로 변신했다. ▲경남 진주(58) ▲서울대 미학과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국립민속박물관장

작전권 준위 주한미군 감축 우려

한미 양국이 오는 10월 제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못박은 로드맵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외교안보 현안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을 불러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철수=한미는 오는 2008년까지 1만2천500명의 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 주한미군을 2만5천명 선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시 작전권 환수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지난 3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은 지속된다는 것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 한미가 합의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전시 증원전력 보강=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육·해·공군 및

국방부 "2만5000명 유지 변함 없다" 일부선 "환수 시기 대폭 늦춰야" 주장

해병대 병력 69만여명과 함정 160척, 항공기 2천여대의 증원전력을 한반도로 전개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전시 작전권 환수 이후 전시 증원전력 규모가 '당연히' 줄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완전한 작전권 단독행사를 위한 첨단 장비 준비하기 위해서는 3~5년으로는 실현성이 없고, 앞으로 10~15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동맹 약화되나=전시 작전권 환수에 따른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정부는 전시 작전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며 미래 안보상황을 고려해 발전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전시 작전권 환수가 한미 모두에게 이익이 있고,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유리하다"는 한 미군 고위장관의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북한 외교당국이 지난달 1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중국 측에 격렬한 항의와 분노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中 안보리 결의 뒤 '힘한 꼴'

홍콩 시사지, 中 찬성표 北항의 내막 공개

홍콩 시사주간지 쟁쟁(爭鳴) 최신호는 8일,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의 찬성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북한과 중국 외교당국 간의 긴박했던 상황과 평양을 방문한 후이랑위(回良玉) 부총리가 방대를 당한 내막을 소개했다.

당과 정부를 매우 놀랐게 했다"며 "항후 발생하는 유사한 사태에 대해선 중국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아침 베이징에선 최진수 북한 대사가 중국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외교부측은 리 부장이 중요한 업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면담을 거절했다.

무턱대고 외교부 청사로 달려왔다. 중국 외교부측은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응대를 거절했고 2시간 넘게 서로 대치한 후에야 북측 외교관들은 청사를 떠나야 했다. 쟁쟁은 이날 또 지난해 12월 북한 문제에 대한 세미나에서 중장기적으로 불태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구속력있는 연방식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과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줄여줄 수도 있고 대안 문제 해결에도 유리하다는 게 중국 측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가을 평칭홍(曾慶紅) 국가 부주석 등을 평양에 극비리에 파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조선이 지나치게 수동적이어서 안 된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한국과 정치협상, 인력교류 등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조선인민은 오랫동안 미 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의 군사위협과 경제제재에서 생존 투쟁해왔다"며 "조선 노동당이 낡은 정권에 구걸해 생존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비가 새서 걱정하십니까? 여름에 더워서 짜증 납니까? 겨울에 춥습니까? 외관상 흉하십니까? 소음이 심하십니까? 한시름으로 일괄 수업을 늘기 위한 영구 방수 단열 50% 절감 효과. (주)태양주택개발 TEL(062) 262-0606 262-0450

국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유아교사 임용시험을 구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려면 우선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학습과 그것을 실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습구분별 개인 역량이 갖추어져야 하고, 비교 우위의 최고 교사진이 선공과목별로 담당해야 합니다. (주)국내영고시학원 TEL(062) 529-0090

경찰의 꿈을 이루는 곳! 100%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랑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합격을 앞당기는 시스템 -매월 1일, 15일 개강. *차별화 된 전문 교수진. 김재규 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TEL(062)236-3112

공무원 여름방학 2차개강. 첫진도 시작반(이론반) 8월 1일 (광주유일 B반) 8월 7일. 문제풀이 8월 1일(서울직 선관위 대비). 경찰직 이벤트 무료교재(138000), 10월 1일 시험대비 문제풀이 무료.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TEL 222-4560

상위권 대학면접 전문-김영. 호남유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대비강좌. MEE/DEET 대비반 개강. 일대, 학사, 사대면접,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약대, 한의대면접,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면접대비-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면접학원 TEL 227-0088